

문화행사 · 성지순례

부처님과 함께 하는 연말연시

공연 전시 '붓물' ... 심신 재충전 기회

- 한 해가 저무는 곳에서 또 새해를 맞
- 는 희망이 피어난다. 다시다닌했던
- 갑술년을 보내고 기쁨의 새해를 맞으
- 며 감동적인 공연 한 편을 보는 것도

- 좋고 부처님의 승리가 어려웠는 성지
- 를 찾아 나서는 것도 보람있는 일일
- 것이다. 연말연시에 가볼만한 문화 행
- 사장과 성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전시회

회 원	내 용	기 간	부 의
명려리 회	연말문화포럼전	12.10~12.31	706-85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국제 현대미술전	12.17~05.1.15	303-7744
공평아트센터	7기미술전	12.21~12.27	733-9512
나태영미술관	포우정(도예)	12.24~12.31	733-1964
대구대학출판사	송년 장문그림전	12.27~12.31	053)420-8015
동송갤러리	94 도시환경조각전	12.1~12.31	745-9011
부산 부산일보	김성호 조각기법	12.26~12.30	051)461-4553
사공갤러리	사공정신전	12.28~01.10	733-9434
서울미술관	중대협예회 골조소묘소묘와 유부묘전	12.17~2.26	379-4119
전주 송화당	고미술가회전	12.17~12.29	0632)45-0567
태양갤러리	94송년 작품그림100점	12.1~12.30	511-3100

성지순례

관 관 상 품	날 짜	여 행 시	부 의
오대산 약방모음	예불 음악 초하루	용정항공 여행사	02) 279-1191~3
왕공신 국악회	* 8. 9일		
황학 일원사	* 18일		
강화 보살사	* 1. 3. 5. 7		
관산 세교사	14. 25일		
봉림암-오계암	12.31~1. 3일		
천안 관덕사·공주 마두사	1. 1~1. 2일		
천안 관덕사·부여 대포사			
산문사·도솔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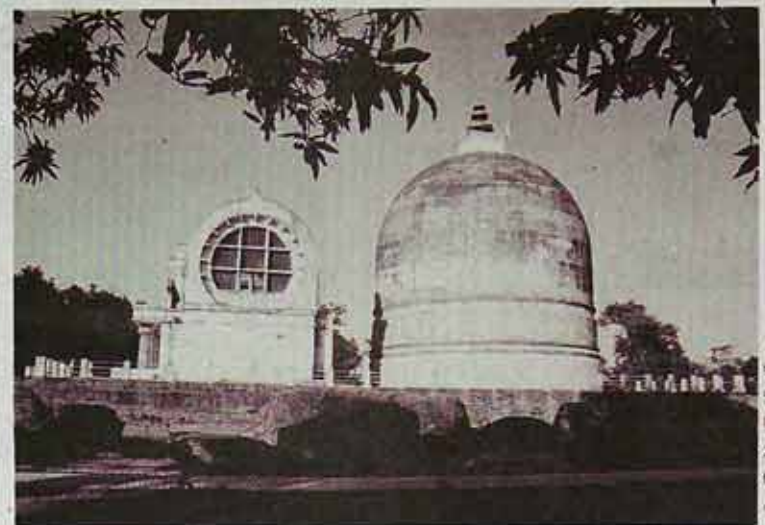


연극·영화

국 정	제 목	기 간	부 의
경향문화극장	신내의 개항이	-1.8	747-7492
대극단	황해소풍	-12.30	743-6804
김현극장	11월의 향초	무기한	513-2661
문화원1단지	제비새 나뭇가지에 꼬리를 매시지 않는다.	-12.31	765-8238
원곡 시스극장	황야	-12.30	747-4565
예술의 전당	홍도가 울지마라! 뮤지컬	-12.31	369-1591
하나원극장	비 오는 바람 (중형전)	무기한	763-0302
한국학교문화원	인도도 가는 날 추위를 뽀뽀할까(only yesterday)	05.1.4 1.20	729-8430

공연

날 짜	공 연	장 소	부 의
24일	원정 콘서트(수정기)	국립 소극장	274-1151
	모음살림의 국악연주회	세종 소극장	399-1810
26일	서울아카데미 송년음악회	예술의 전당	578-9065
	최고 향기롭게 날아가기(송년음악회) 최고 향기로운 음악회	효창아트홀	741-4696~7
27일	송기문 국악소년 음악회	효창아트홀	551-3817
	김익우와 사물놀이·리드연연	효창아트홀	747-8277
28일	가족음악회	에스리아이볼	571-4197
	송년음악회 300여출연	이화대극장	784-2867
29일	서울시향 518회 정기연주	세종대극장	399-1630
30일	솔리스트 앙상블 연주회	세종대극장	353-1781
31일	송년특별음악회	예술의 전당(음악당)	580-7411
05.1.21~	95 예술 실내악 페스티벌 개최	삼삼콘도·속초문화회관 강릉문화회관	736-3200



○가난하지만 천 박치 않고 때를지 않은 땅 인도. 사 람들의 마음엔 부 처님의 정신이 살 아있다. 사진은 루 시나기라 열반당.

“인류의 내일이 그곳에 있었다”

캐스트, 말라리아, 거지, 굶주림... 이런 말들이 자아내는 흉흉한 분위기는 오히려 인도 성지 순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어차피 여행이란 일산에서의 떠남이고 낯선 얼굴에 나를 비추어 보는 작업이 아닌데, 더욱이 부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혹시' 하는 속물스런 걱정은 배낭에서조차 꺼내버리기로 했다.

1994년 11월 18일, 흔히 '부처님의 나라' '명상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에 도착했다. 현지 시각 새벽 2시. 인도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후끈한 날씨, 뻘뻘 눈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는 경비원의 눈빛, 허름한 볼에이 국제 공항 건물들이 이국임을 실감케 한다.

일행은 서울로 미리 준비된 버스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요즈음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형태의 버스타. 그러나 차창 위에 달린 소형 선공기를 자랑스레 틀어 보이는 인도인의 얼굴에는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차창 어둠에 익숙해진 시야로 우리 일행의 편편이 드러난다. 윈로 스남에서부터 불교 안뜰까지 어른들 그리고 나같은 열치기까지 이혼하여 사부대중이 다 모인 셈이다. 이분들과 함께 해일 9와 10일의 일행. 고맙고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발레 손을 모아본다.

호otel로 향하는 버스 속. 드디어 우리는 정식으로 인도를 만나는 의식을 치렀다. 꽃방울만들 심도 캐어 만든 굿다발을 현지 인도인 안내음이 한뼉 한뼉의 목에 걸여 주고 있었다.(이후로도 우리는 자는 곳마다 이 일을 치러야 했다.)

그 조잡스런 굿다발이 내 목에 걸리는 순간, '아, 선량하기 그지없는 이 민족에 축복 있어라.'는 말이 꼭땀을 뜨겁게 했다. 나는 이후로도 이런 아름다운 굿다발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린 시절 보기를 곳으로 만든

부처님의 품속

인도를 다녀와서

윤재학

우리는 맨 나중에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 들었다. 시작과 끝이, 삶과 죽음, 부처와 중생이 돌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부처님의 뜻 때문이었을까?

시계를 친구의 손에 매어 주면 일이 떠오른다. 동화와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인구 10억(90년 통계로는 8억5천)으로 세계 2위, 국토 면적 세계 7위로 우리나라의 약 15배, 주요 지방어만 꼽아도 15개가 넘는 언어가 쓰이는 나라.

삶과 죽음이 한가로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나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순간에 모여 있는 나라, 절대 가난과 어처구니없는 부가 한심할 정도로 광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내가 본 인도는 그랬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그것이 바로 나의 숙제다. 인도에서는 모든 경계가 무너진다. 차선 조차도 별 의미가 없고, 사람과 차와, 락사(인도식 인력거), 소, 돼지 그 밖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조잡한 자세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잘 흐르듯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것이아 말로 '인도식의 합라다'라고 강변하지도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주는 이질감, 곤혹감, 불편 따위는 오히려 이방인들의 몫이다. 나는 그런 불편한 이방인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다. 물로 볼 것조차 없는 삶, 바로 부처님의 품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나는 비로소 불자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슴프레 떠올랐다.

우리 일행은 하루 서너 시간의 잠으로 만족하며 부처님의 자취를 쫓았다. 초전법륜자인 녹야원에서부터 성도지인 부다가야를 거쳐 열축산, 죽림정사, 나란다 불교대학, 루시나기라의 열반당. 지금은 내달 땅인 룸비니 동산까지.

참으로 우습게도 우리는 맨 나중에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 들었다. 시작과 끝이, 삶과 죽음이, 부처와 중생이 돌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부처님의 뜻 때문이었을까?

자신의 인도 땅엔 불교가 없다. 남아있는 유적들 또한 이슬람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잔해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삶의 외형적 질서와 물리적 토대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내면에 흐르는 정신과 삶과 세계에 대한 태도는 분명 부처님 말씀대로였다.

자연과의 친화, 삶에 대한 긍정, 생명에 대한 끝없는 외경,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날의 인도를 지키는 힘이요 부처님의 까피가 아닐까?

그들의 삶을 천박한 물질적 가치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어쩌면 저들이 유보한 물질적 풍요를 지금 우리들이 게걸스럽게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가난하되 천박하지 않고 때를지 않은 땅, 그래서 인도의 지는 해는 어디서 보아도 잠얼하다. 어쩌면 인류의 내일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닐지.

<출판기획부 차장>

녹수청산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것을 고집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문화를 이어갑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고집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 녹차/ 민속차/ 약차/ 건강식(죽)을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만듭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수행 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의 장소로도 좋습니다.

공간 가득

그윽한 정취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禪茶一如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